

박지원 선전·주승용 1위... '호남 표심' 매서웠다

새정치 2·8 전당대회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호남 민심이 매서운 결집의 힘을 보여줬다.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인 문재인 후보에 맞서 박지원 후보가 호남 대표 주자로 3.52% 포인트 차이로 따라 붙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고위원 경선에서 주승용 후보가 치열한 선두다툼 끝에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호남 정치 복원’ 당심 결집... 정치역량 강화 박, 당대표 3.5% 차 석패 ‘호남 맹주’ 굳혀 주, 최고위원 득표 1위 ‘차세대 리더’ 떠올라

정치권에서는 대표 경선 결과에 대해 문재인 후보의 승리보다는 박 후보의 승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박판 국민 여론조사 경선 룰 변경 등이 없었다면 결과는 뒤 바뀔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친노 진영이라는 거대 계파와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박 후보가 박빙의 성적을 거둔 것은 호남 민심과 당심의 결집이 결정적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후보의 ‘당권-대권 분리론’과 ‘호남 정치 복원론’이 호남 민심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갈증이 강했고 대권 주자가 아닌 당권은 호남이 맡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 호남 민심의 중론이었다는 평이다. 여기에 호남 민심이 특정 계파의 당내 독점 구도를 견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주승용 후보가 1위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것도 호남 민심의 지지가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주 후보가 경선 기간 동안 호남 대표 주자를 자임한데다 계파 독점 체제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도 호남 민심의 결집에 놀라는 분위기다. 어느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호남 민심이 새정치민주연합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평소에는 외면하다가 선거때만 호남을 찾는 행태에 대해 이번 전당을 통해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동안 잠재됐었던 호남 민심의 위력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타난 것 같다”며 “우리 당의 뿌리인 호남 민심의 힘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전남 일부 대선 의원들은 이번 대표 경선 과정에서 방관적 입장을 보이거나 전형적인 갈자기 행보를 보이면서 호남 정치 역량을 스스로 약화시켰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전당대회를 찾은 전남지역 모대 의원은 “박지원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지 않아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호남 민심의 매서움을 보여준 것 같아 만족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새 대표에 문재인 의원

“서민경제 파탄 땀 촛정부와 전면전”

최고위원 주승용 등 5명 선출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문재인 의원이 선출됐다. 문 의원은 8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전국대의원대회 대표경선에서 45.30%의 득표율로 박지원(41.78%) 후보를 3.52%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 대표가 됐다. 80년대 운동권 대표로 나선 이인영 후보는 12.92%의 득표율로 3위에 그쳤다.

〈관련기사 3·4면〉

하지만 경선 막바지 논란이 됐던 경선을 변경이 경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어 리더십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을 가리는 최고위원 경선에서는 주승용 후보(여수 을)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정정래·전병헌·오영식·유승희 의원(득표 순)이 선출됐다.

주 의원은 치열한 선두 경쟁 끝에 정정래·전병헌 의원을 비교적 여유있게 따돌리고 1위로 최고위원 자리를 차지, 정치적 위상을 한 단계 높였다.

문 대표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우리 당의 변화가 시작됐다. 총선 승리의 깃발이 올랐다”며 “동지 여러분은 변화를 선택했고, 저는 그 무게를 명령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을 향해 “민주주의,

서민경제, 계속 파탄 낸다면 저는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여야 대립각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문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의 공이 있고,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공로가 있다”면서 “저는 그 분들을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임 대통령으로 함께 모시고 함께 기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 9일 지도부의 첫 일정으로 현충원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 참배 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 문 대표는 “개헌은 꼭 꼭 필요하다”며 “개헌 화두는 역시 분권으로, 지금까지 대체로 중앙 권력구조 개헌 쪽에 논의가 많이 모아졌는데, 그것 못지 않게 지방분권과 입법 사법 행정의 제대로 분립되는 3권 분립 등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새 지도부 구성과 함께 지난해 7·30 재보선 참패와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퇴진 이후 불안하게 지속돼 온 비대위 체제를 마감하고 당 쇄신 작업과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문 대표는 당장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깊어질 대로 깊어진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4·29 보궐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문재인 체제 출범 새정치민주연합 새 당대표에 선출된 문재인 의원이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제1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선인 발표되자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KTX 호남·전라선 운행안

	코레일안(1월6일)	국토부 확정(2월 5일)
용산~송정(호남선)	44회→56회(12회 증편)	44회→48회(4회 증편)
용산~여수(전라선)	18회→26회(8회 증편)	18회→20회(2회 증편)
서대전역 경유	18회	경유 안함 (용산~서대전~익산 18회)
총 운행	82회 운행(20회 증편)	68회 운행 (6회 증편)

호남선 KTX 광주·여수 직행 서대전 경유 안고 광주역 제외

국토부 확정...증편은 6회 만

오는 4월 개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고 광주(목포)와 여수로 직행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5일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여부와 포함 KTX 직결선 개통에 따른 KTX 운행계획의 방향을 확정·정발했다.

〈관련기사 2면〉

현재 주말기준 하루 62회 운행되는 호남선 KTX는 모두 호남고속선신선 위를 달리게 되며 철도공사는 6회를 증편해 총 68회를 운행할 계획이다. 용산~광주송정·목포의 경우 현재 44회에서 48회로, 용산~여수 구간은 18회에서 20회로 늘릴 방침이다. 호남선은 4회, 전라선은 2회 각각 증편된 것이다.

애초 코레일은 호남고속철도의 KTX 운행 횟수를 하루 62회에서 82회(주말 기준)로 늘리고 이중 18회(22%)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도록 하겠다는 운행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었다. 다만 국토부는 대전·충청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용산에서 출발해 서대전~계룡~논산~익산까지 이어지는

노선에 별도의 KTX를 하루 18회가량 운행해 호남선 KTX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 구간을 운영하는 iTX-새마을 등 일반열차도 증편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운영과정에서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계획을 조정해 나가고 특히 내년에 수서 KTX가 개통되면 KTX차량이 늘고 선로여건도 개선되는 만큼 수요에 따라 운행횟수도 증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호남선 KTX 광주역 진입문제가 무산되면서 광주시 북구 등은 호남고속철도 진입 무산에 따라 기능을 상실하게 된 광주역 폐쇄와 공동화 방지대책 등을 정부 당국에 요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원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 2.16 ~ 22(일)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원서접수 ▶ 2.9 ~ 23(일) 062-605-1115

VILL N DUS

동림동 **운암산 빌앤더스** 운암산에서 상무자구를 **바라보다**

선착순 2차 조합원 모집

마감임박!
빨리 서두르세요!

미래를 열어가는
현대아산

**조합설립인가
완료**

[총 923세대 프리미엄 대단지]
84㎡ 63㎡A 63㎡B

주택홍보관 위치: 김대중컨벤션센터 맞은편

문의전화 **062-373-0111**